

미래의 도시환경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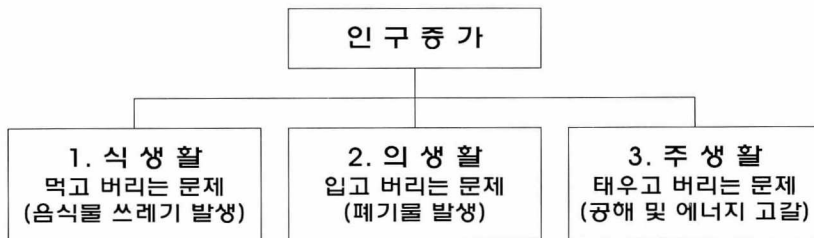
현영조 | 서울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이학박사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다루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부분 동양인의 사고는 자연에 적응하고자 하였으며, 생태계 순환사상을 삶의 기초로 하였다. 한편 서양은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자연에 도전하는 정신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에 순응하는 동양적 사고와 자연에 도전하는 서양적 사상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신선사상과 불교적 심성을 바탕으로 유교적 사상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지역 및 도시 그리고 마을과 주생활공간에서 터를 잡을 때 풍수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조상은 음택과 양택을 택할 때 풍수지리사상을 생활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풍수와 외래풍수가 만나게 된다. 풍수지리사상이란 생태환경과학인 동시에 생태미학의 예술 철학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은 예술 문화가 최종 단계이다. 결국 사람은 무병장수를 소망하지만, 백년 내외의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다가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고 죽는 방법을 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보람있게 살다가 죽고 싶어 한다. 그러한 과정은 ‘생로병사’를 겪는 동안 환경적 예술만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유어예”라는 공자의 예술 철학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환경 개발을 인간과 자연을 연계시켜 인간 최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발 계획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커다란 3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먹고 버리는 문제. 둘째, 입고 버리는 문제. 셋째, 태우고 버리는 문제. 다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의 3가지 문제점

시 말하면 먹고, 입고, 살다가 버리는 일들이 큰 문제가 된다.

상기한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생태도시, 환경도시, 전원도시, 첨단도시, ..., 운운하지만 인간의 욕구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 계획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철학을 가지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쾌적한 삶의 터전’이란 인간이 추구하는 환경과 경제가 충돌하지 않는 미래 공간의 형태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때 가능하다.

생태계의 일원임을 재인식할 때 인간이 할 일은 무엇보다도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의 균형이란 사람 외의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행위에 문제가 있고 자원을 절약하고 공해를 억제하는 의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 인간의 행위란 사는 방법 즉, 주생활의 혁신으로 가능해진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자연답게 유지하는 생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것은 우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동안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집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은 식량과 에너지를 얻고 주택을 건설하는 동안 엄청난 자연을 훼손하고 급기야는 자원의 고갈까지 생기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해가 발생하고, 자연의 재해를 초래

하게 된다. 인간의 공해와 자연의 재해는 인간의 행위에서 발생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작한 새로운 시대,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접목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동서양의 공감된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을 다루는 동양의 풍수지리의 경험적 지혜, 특히 한국의 전통적 지혜인 풍수지리 사상과 현대의 새로운 공간 개발론 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도시 이론’의 접목은 인간의 소망인 무병 장수의 삶을 찾는 과정으로서 생로 병사의 인



간다운 삶이 되는 미래의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초적인 이론이 될 수 있다. 미래의 도시 공간의 조건은 생태학적 책임과 경제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과 문화의 가치성을 접목한 실사구시적인 도시 형태의 환경적 도시로 유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간적 환경문화도시 또는 풍수생태도시는 대표적 실험 사례가 될 수 있다.